



한국물류협회의 물류전문인력양성 현황

(사)한국물류협회 교육국제협력팀 대리 정 경 선



1. 물류전문인력 양성의 방향

최근 물류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차원에서 바라보는 로지스틱스(Logistics)수준에서 벗어나 전체 공급망(Supply Chain)수준의 전략적인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수한 물류전문인력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지난 1월 물류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물류교육수요 현장방문조사」결과를 보면 물류업체들은 글로벌물류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물류서비스의 내용을 기획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물류전략을 제시하며, 물류서비스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물류전문인력은 고급물류전문인력과 물류기능인력으로 구분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고급물류전문인력은 물류관리자, 물류분석가, 물류경영전략 수립자(CLO) 등으로 볼 수 있고, 물류기능인력은 물류정보화, 자동화 및 효율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고급기능직과 수·배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단순기능직으로 볼 수 있다.¹⁾

아직 국내의 영세한 물류업체들은 고급물류전문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물류기능인력도 제대로 양성하

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의 물류전문인력양성은 고급물류전문인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함은 분명하다.

2. 한국물류협회의 물류교육체계

〈표1. 한국물류협회 물류교육프로그램〉

비고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국내연수
전략	물류혁신전략세미나 글로벌로지스틱스기업 특별세미나 CEO초대회	[기초과정] 물류개론 물류정보시스템 수배송시스템관리	우수물류현장 BM연수
고급	국제물류세미나 6시그나세미나 물류정보화세미나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	SCM 및 e-SCM 실무 물류관리사 숙성대비 물류관련법규해설	
실무	수·배송 물류실무 물류센터운영실무 SCM 및 최적재고실무 물류비관리	[신규개강예정] 물류회계 식스시그마물류 국제물류 환경물류	
초급	물류입문 물류관리사양성		

※ 2006년 정부지원예정 집합과정과 해외연수, 컨퍼런스는 제외함.

한국물류협회는 1984년 한국물류관리연구원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물류전문인력양성만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06년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연수 및 각종 교육관련 행사(컨퍼런스)는 제외하고서라도 이론적인 기반을 다지는 초급과정에서부터 최신 물류정책이나 물류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고급과정까지 국내 물류교육기관 중 가장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회원사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물류전문인력 양성방안 최종보고서', KOTI/KMI, 20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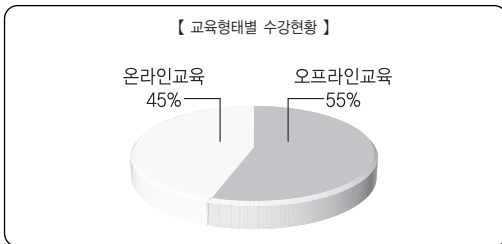


※ 데이터로 살펴보는

2005년 한국물류협회 물류전문교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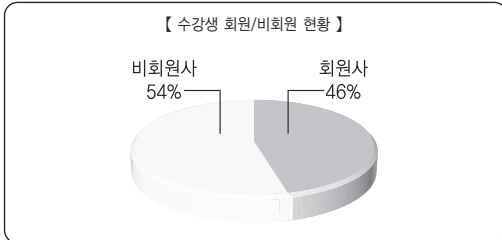
- 컨퍼런스 및 해외연수, 정부관련 교육사업의 참가인원은 제외

▶ 전체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한 형태별 수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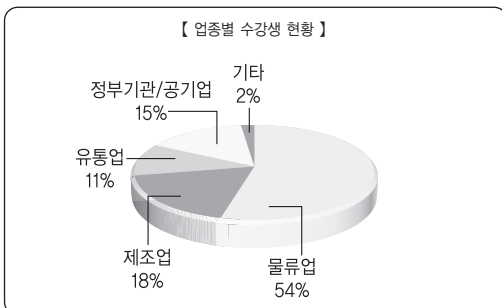
* 온라인교육인원은 총 3회 정기개강을 기준으로, 맞춤형대로 제공된 기업별 단체수강인원을 포함하여 전체수강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물류관리사 속성대비' 과정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수강비율



* 수강인원 중 비회원사의 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해, 물류교육에 대한 업계전반의 관심이 증가된 것이라 판단된다.

▶ 업종별 수강생비율



* 수강생의 대부분은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우정사업본부 및 체신청의 사업 확장으로 물류교육수요가 높아 정부기관의 비율이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1) 집합교육

▶ 초급과정

「물류입문」과정과 「물류관리사양성」과정은 물류전문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이론이 부족한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과정이다. 특히 「물류관리사양성」과정은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물류관리, 화물운송, 보관하역, 물류관련법규의 기본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수험준비생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실무과정

「물류실무」과정들은 분야별로 전문가획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수·배송, 물류센터, SCM, 재고관리, 물류비 등의 기본 이론과 함께 우수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과정내용을 구성했으며, 실제 분야별 우수 물류현장을 방문하는 「국내연수」와 함께 물류업체 중간관리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과정이다.

▶ 고급/전략과정

고급 및 전략과정은 물류임직원들의 최신 물류분야에 대한 안목과 정보력을 강화시키고자 구성된 「로지스틱스세미나」와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을 위한 준비단계로 물류분야 CEO를 대상으로 국·내외 물류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CEO조찬회」를 중심으로 물류관리자와 물류경영전략수립자(CLO)들의 수요에 맞추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 제1기를 배출한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과정은 명지대학교와 함께 산학협력으로 기획되어 기존의 물류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물류컨설팅기법과 물류혁신기법, 물류시스템 구축실습 등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물류현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만을 중시했던 물류관



리자들을 물류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보다 나은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는 물류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도록 만들어 고급물류인력 양성과정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고자 한다.

(2)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은 현재 「물류개론」, 「물류정보시스템」, 「수배송시스템관리」, 「SCM 및 e-SCM 관리」, 「물류관리사 속성대비」, 「물류관련법규해설」 등 6개 과정을 온라인교육사이트(www.kolaedu.ne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물류회계」, 「식스시그마물류」, 「국제물류」, 「환경물류」 과정을 추가로 개발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온라인교육과정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합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사전학습단계로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싶다. 아직 서비스 초기단계라 학습운영시스템(LMS)과 콘텐츠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온라인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정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수강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3) 국내연수

「국내연수」는 물류협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0년 넘게 꾸준히 운영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이 과정은 업계의 특성상 시간적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물류기능인력들의 동종업계 벤치마킹교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단순히 방문기업의 회사소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기업 실무자와 참가자가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를 통해 가지고 있던 현안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총 6회에 걸쳐 실시될 올해 「국내연수」는 매월 물류분야별, 업종별로 테마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테마는 일정별로 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 물류전문인력개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물류인재개발의 혁신과 방향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1954년 '경영의 실제(The Practice of Management)'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가장 큰 성과를 거둔 혁신은 전자나 화학 분야의 신제품이나 신공정이 아니다. 물류에서의 혁신이며, 인재개발의 혁신이다."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류교육과정이 반드시 놀랍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과 기법들이 직원의 업무성과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교육을 시키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다. 진정한 물류인재개발의 혁신은 회원사 및 물류관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각 업체의 상황에 맞는 적합함을 찾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물류협회의 교육과정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뛰어드는 물류의 새로운 분야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류관련 기업의 가상의 교육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강사진의 발굴과 양성 및 온라인교육서비스 기반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물류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물류**

